

# 北 금융 활로 찾는 시중은행... 아직은 탐색 단계

## J노믹스 北으로 가다

### ② 금융 실크로드

남북경협TF 운영 등 사업 모색 금융은 물론 금강산·개성공단 등 다채로운 인프라 구축에 관심 제도적 보완·시스템 정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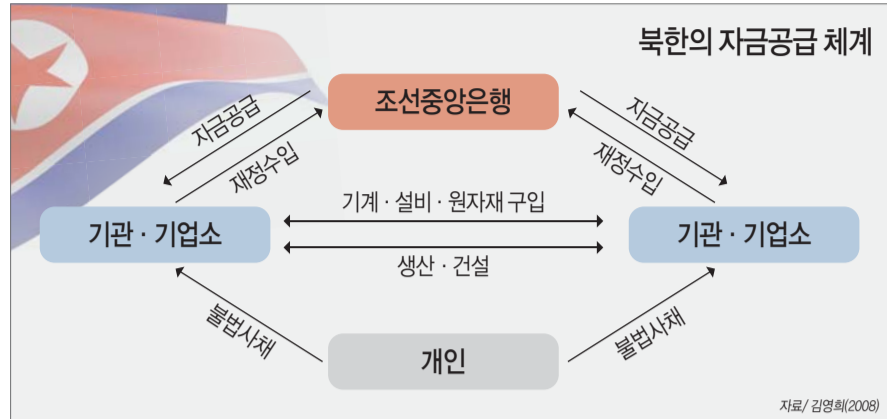
시중은행들은 '남북 경제협력'에서의 역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18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때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성과를 내려면 오랜 시간과 금융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 ◆北시장 주도권 잡기 물 밑 작업

시중은행들은 북한 알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7월 그룹경영회의 겸 독서토론회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과 변화를 담은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을 다뤘다. 동시에 이 책의 작가인 다니엘 튜더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KB금융은 남북 관계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이 참여



하거나 지원할 기회 영역을 찾기 위한 테스트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경협 관련 연구를 담당할 북한 전문가도 찾고 있다.

하나금융은 '남북하나로금융사업단'을 발족해 경제, 금융, 법적 제도 등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합영주 KEB하나은행 행장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북한 방문에 함께하면서 그룹차원에서 새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북사업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대건설과 대립산업 등 인프라 구축 건설사와 접촉해 사업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도로공

사에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북사업 금융조달방안을 모색하면서 대북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남북 교류가 잘 이뤄지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 개성공단 또는 공단 배후도시에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북한 전역에 탁아소 지원사업을 펼쳐 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남북 금융 협력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 북한 진출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개성공단에 재입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에 영업점을 개설했던 우리은행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로 철수한 이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지하에서 개성공단 임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8월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시스템을 바꾸고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은행의 핵심 역량을 모아 '디지털 코어 뱅크'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를 IBK기업은행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다시 금강산 지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현재 남북금융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고 있다.

#### ◆北과 합영은행 등 통해 진출 모색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최근 북한 내 반미 구호와 포스터가 사라지고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시중은행에게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대외개방도(무역의존도)가 52%에 달한다. 세계 평균 60%에 근접해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화폐에서 외화 점유율은 약 52%에 달하고, 가계소득의 70% 이상을 시장에 의존하는 대외 개방 경제체제가 갖춰져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윤병수 연구위원은 "저성장국면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은행시장의 한계에 직면해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북한 금융시장의 성장잠재력 뿐만 아니라 북방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대북 금융협력과 진출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하고 함께 북한의 관련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하고 함께 북한의 관련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북한의 문이 열리더라도 경영 위험이 있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이 북한과 합영은행을 설립하거나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인투자 장려부문 중심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해결,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남북경협 바람에 국책은행 살아싸움 주목... 승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물밑경쟁 치열 이동걸 산은 회장 금융권 유일 평양행 수은, 남북협력기금 운용... 인력 보강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할 금융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은행으로는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IKCF)을 운용하며 전면에 나서 왔지만 남북 화해 무드가 본격화 되면서부터는 산업은행의 역할론도 꾸준히 부각됐다. 특히 국책은행 수장 가운데 유일

하게 산은 회장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발탁되며 무게 중심이 산은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으로 이동걸 산은 회장이 국책은행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아직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국책은행 수장이 직접 방북하면서 향후 금융권의 역할이 커질 지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회장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남북경협은 그 범위가 넓고도 위험하기 때문에 한 두 개 기관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는다"며 "산은이나 수은, 시중은행이든 외국기관과 국제기관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남북 경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수은 행장 역시 지난 7월 간담회 자리에서 "수은은 IKCF 수탁기관으로서 축적해온 대북 경제협력 경험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해 대북경제 협력의 새 토대를 쌓을 계획"이라며 "수은이나 산은이나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 모두 남북경협과 관련한

금융 지원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쥌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산업은행은 올해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개편한 바 있다. 남북경협과 북한개발금융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신경제센터 내에 남북경협연구단을 새로 만드는 등 부서 규모도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IKCF와 관련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은행장은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 비용을 IKCF가 모두 감당하기 보다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팔레스타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신탁기금(트러스트펀드) 등을 만들어 초창기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현재 IBK 남북경협지원위원회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남북경협株,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마감 KT,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주관 통신 맡았다

오전 상승세 종목 오후에 하락 반전 '회담 보다 美·中 무역분쟁 더 부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8일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는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부산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5.68% 하락한 20만7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부산산업과 함께 철도 연결 관련주로 꼽히는 현대로템(-2.37%), 푸른기술(-5.40%), 대야티아이(-6.23%) 등도 동반 하락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수혜주로 꼽혀온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다.

좋은사람들(-3.87%), 신원(-2.93%), 남광토건(-4.14%), 제이에스티나(-1.01%)의 주가가 떨어졌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이밖에 인프라 건설 관련주인 우원개발(-6.88%), 고려시멘트(-4.20%), 농업 관련주인 조비(-4.03%), 경농(-5.11%), 현대사료(-4.36%) 등 4%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중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도 오후 들어 하락 반전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하나인 자화전자는 장 중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보험세로 장을 마감했다.

또 북한 출신 창업주를 둔 선편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이날도 7% 이상 상승세를 보이다 이내 8% 급락하며 장을 끝냈다.

전문가들은 이날 주식시장 움직임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이슈보다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더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4월 정상회담 이어 연이어 선정

KT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준비위원회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주관 통신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통신 지원을 맡았다.

협약에 따라 KT는 평양 정상회담 관련 통신 시스템 및 시설을 구축하고 통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1000석 규모로 마련된 메인 프레젠테이션에 방송·통신망 제공을 통해 평양 정상회담의 실시간 상황을 중계한다. KT는 지난 16일부터 DDP 프레젠테이션에 상주하고 있는 국내외 취재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재



KT 직원들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젠테이션'에서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KT

지원은 20일까지 계속된다.

KT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평양 정상회담의 완벽한 통신 지원을 위해 60여 명의 네트워크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운용·방송, 전송, 무선, 설계·구축, 선로·B

iz로 나눠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했다.

KT의 IT서포터즈도 평양 정상회담 취재 지원에 나선다.

/안병도 기자 catchrod@